

동구의 변화와 유로코뮤니즘： 이탈리아 공산당의 변화

이 성 형*

<目 次>	
I. 들어가면서	III. 대전환의 전사
II. 유로코뮤니즘과 혼란사회 주의의 위기	IV. 제19차 당대회의 대전환 V. 맷으면서

I. 들어가면서

1989년은 엄청난 격변의 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두 개의 진영 간의 대립 체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졌고, 불세비키 혁명 이후 열려진 한 시대는 역사의 뒷무대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89년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나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코뮤니스트이자 탁월한 역사가로 평가받는 홉스봄은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내지 혁명적 재편을 가리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특정 유형의 운동, 체제,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의 종언이다”라고 강파하고 있다(Hobsbawm, 1990:19). 분명히 한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으나 미래의 질서는 아직 그릴 수 없는 불안한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는 셈이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 직면한 유럽의 좌파들은 대체로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소련과 동구 체제의 ‘경직성’과 인권 부재 현상을 일찌감치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블루간의 대립 속에서 소련 동구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회변혁 프로그램을 실천해왔던 유로코뮤니즘 세력들도 페레스트로이카 이

* 동국대 강사

후의 경제를 새로운 비약의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블럭의 해체가 유럽의 좌파세력들에게 새로운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인지, 해체의 계기가 될 것인지 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물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¹⁾

이런 맥락에서 서구 세계에서 대중의 지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공산당(PCI)은 1990년 3월에 열린 제19차 임시 당대회에서 당명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당’으로 개칭하고, 이제까지 고수해왔던 유로코뮤니즘 노선을 폐기하였다. 이탈리아 공산당은 이제껏 몸담아왔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떠나지 않았던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자신들을 유럽 좌파(Euro Left)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합시키는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섰다. 아울러 당명 변경 후 자신들 역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종전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제 3의 길’(la terza via) 노선도 폐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로코뮤니즘 역시 한 시대의 막을 내리기 적전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 모델에 대해 일찌감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고,⁽²⁾ 그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렇게 급격한 노선 전환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러한 변화는 유럽 사회주의 운동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제 유로코뮤니즘 역시 자신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의문들을 해명하기 위해 1989년의 역사적 대격변을 기점으로 새로운 좌파의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유로코뮤니즘 특히 이탈리아 공산당의 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속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정치변동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유로코뮤니즘 노선과 현존사회주의의 위기 사이의 상관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 사회주의권 변화가 이탈리아 공산당(PCI: Partito Comunista Italiano)의 전략 변경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1) 블럭의 해체가 유럽 좌파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Stuart and Laclau(1990), Campbell et al.(199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PCI 이론가들을 포함한 이탈리아 좌파들의 소련사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Battistrada(1989)를 참조하라.

II. 유로코뮤니즘과 혼존 사회주의의 위기

유로코뮤니즘의 기원은 대체로 1974년 브뤼셀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각국의 공산당이 모여 서구 사회의 변혁론에 있어 의견의 통일성을 확보한 이후, 1976년 유럽공산당 배틀린 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한 데서 찾을 수 있다.⁽³⁾ 당시 남부 유럽의 세 국가에서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좌파가 해제모니적 다수를 확보할 가능성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사회변혁의 전략은 무엇보다 당시 점증하고 있던 ‘현존사회주의권’의 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당·국가 융합 체제의 경직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자기 개혁의 잠재력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명령지령적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이 점차 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델이 서구의 미래상으로 제시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공산당들은 동구의 역사적 경험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기준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을 획정할 필요를 느꼈다. 바로 여기에서 유로코뮤니즘의 프로젝트가 ‘현존사회주의’ 모델의 위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로코뮤니즘의 또 다른 한 차원은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사회당들과 사민당들은 전후에 확립된 ‘일국적 캐

(3)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좋은 입문서로는 Claudio(1978)이 있다. 끌라우던은 당시 스페인 공산당(PCE)의 중심 이론가로서 유로코뮤니즘 좌파의 입장에서 이에 관련된 많은 저술을 낸 바 있다. 예컨대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를 유로코뮤니즘(그런 의미에서 반소적) 입장에서 서술한 Claudio(1975)를 비롯하여, 소련과 동구의 반체제 운동과 그 이론을 분석한 Claudio(1981)은 역작으로 평가를 받는다. 반면 소련 이론가들과 공개논쟁을 통해 유명해진 당시 스페인 공산당 서기장 Carrillo(1977)는 유로코뮤니즘 우파의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유럽 좌파의 지성사 내지 운동사를 저술한 Azcarte(1985) 역시 사민주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유럽의 운동사를 해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PCI 이론가들 역시 좌우파로 대별되는데 유로코뮤니즘 좌파의 입장으로는 Ingrao(1980), Magri, Trentin, Castellina, Cerroni(1984) 등이 있고, 우파의 입장으로는 Amendola, Napolitano(1977), Vacca, de Giovanni, Occhetto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저술은 Marramao et al.(1981), Weber(ed.)(1979) Althusser et al. (1982)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프랑스 논자들의 논의는 보카라의 ‘과잉 축적-가치감가’ 테제에 기초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운영 편저(1989)를 참조하라.

인스주의' (national Keynesianism) 체제 아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자본주의 발전이 배태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중화시키고 근로대중의 생활상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한 사회주의 이상에는 접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중들에게 충분한 민주주의와 권력을 제공하지 못한 데서 그 한계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유로코뮤니즘 노선은 바로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주의 건설과 그 실현에 대한 대안일 뿐 아니라, 개량주의적 사민주의의 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제 3의 길' (la terza via: 베를링게르)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1977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3국의 공산당 지도자가 마드리드에 회합하여 사회주의 변혁의 새로운 전망으로 제시함으로써 결정에 달했는데, 이즈음 이 노선은 유럽의 범위를 넘어서 일본과 라틴아메리카 공산당들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즘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고, 좌파와 우파 사이의 간극 또한 적지않아 이를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대체로 1975년 11월에 PCI와 PCF가 공동으로 표명한 '로마선언'에는 아래와 같이 요약되어 있다.

(1)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한층 더 고도화된 단계를 구성한다. 즉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된 민주주의이다. (2) 사회주의로 향한 전진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지속적인 민주화의 틀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3) 한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은 주요 생산과 교환수단에 대한 공적인 통제와 점진적인 사회화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 민주적인 경제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국가가 지닌 세속적 성격과 민주적 기능화를 강조하고, 국가의 민주적 분권화로 지방정부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5) 정당의 다원성은 물론 보장되고, 야당이 존재하고 활동할 권리와 더불어 당내에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자유롭게 형성되어 민주적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6)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중시한다. (7) 사회주의 변혁은 거대하고 힘있는 투쟁과 광범한 대중운동의 결과로 노동자계급 주위에 민중의 다수를 결집시킬 때만 주어질 수 있다. (8) 이 모든 민주적 생활의 조건을 원칙적 가치로 받아들인다(Claudin, 1978:65-6에서 재인용).

위에서 밝힌 내용들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필수불가결

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코뮤니즘 노선은 흔히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 노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주적 길’ 노선은 자본주의 체제에 흡수되어 변혁의 잠재력을 잃어버린 사민주의 모델을 비판할 뿐 아니라, 소련이나 동구의 ‘당-국가 융합 체제’와 권위주의적 ‘명령지령형 계획경제’에 기초한 소비에트 모델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더불어 관리의 사회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당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정치의 사회화’ (Cerroni, 1984)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 3의 길’ 노선이라고 부른다. 서구의 공산당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구 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 평가리, 폴란드 사회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당으로부터 자립화하려는 노동운동(예컨대 폴란드 연대노조)이나 사회운동 등 정치적 반대세력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민주적 변화의 전망을 점치기도 하였다(cf. Claudin, 1981).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은 독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계급투쟁을 국제관계 영역으로 확장시키려는 소련의 입장은 계속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미명 하에 타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로써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서구의 분리’(Western schism)가 가능해졌다. PCI 이론가 루비(Antonio Rubbi)는 1977년에 진영과냉전의 논리에 매몰된 소련의 국제주의 개념을 대체할 ‘신 국제주의’를 창안하기도 하였다(cf. Vodolazov/Rubbi, 1989; Ingrao, 1985).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핵시대의 국제관계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련이 새로운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거나, 아프카니스탄에 개입하는 군사행동을 비난하였다. 이들은 핵전쟁의 위협 뿐 아니라 생태계의 위기나 인구폭발 문제, 제 3 세계 빈곤문제 등을 주시하면서 지구적 위기에 대한 세로운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에게 참신한 발상을 제공해 주었으나 유럽 공산당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국제관계 문제나 사회주의의 민주적 개혁은 사회주의권 자체의 변화가 없이는 조그만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PCF와 PSF 사이의 ‘공동강령’ 노선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 PCF의 후퇴로 유로코뮤니즘 내부의 분열이 점차 노정되고 스페인 공산당

(PCE)마저 내분으로 당세가 약화되자, 유로코뮤니즘은 점차 쇠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나의 ‘운동’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유로코뮤니즘의 시작은 1985년 이후 소련의 개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된 초기에 제안된 많은 내용들이 유로코뮤니즘의 그 것과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 정치적 문화적 다원주의의 강조⁴⁾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의 강조, 계급적 관점을 넘어 제기되는 전인류적 가치관 등은 유로코뮤니즘 우파들의 논리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 동구의 많은 개혁론자들(브루스, 코르나이 등) 역시 유로코뮤니즘적 시작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소련의 많은 개혁론자들은 물론 재야파 운동가들의 저술(예컨대 Kagarlitsky, 1990)에서도 유로코뮤니즘 좌우파들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물씬 풍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최근 개혁론자들에 미친 유로코뮤니즘의 영향력이 아니라 유로코뮤니즘이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갔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유로코뮤니즘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세했고, 또 서방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중적 지지도를 지니고 있는 PCI의 노선 변화를 최근 정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PCI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변화의 폭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항상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주도면밀함이 일반적인 관찰자의 상상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PCF의 경우 대체로 최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유럽 정세를 파악하는 방식이나 소련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PCI와 다소 차이가 나므로 이는 다른 기회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⁴⁾

III. 대전환의 전사

PCI의 제19차 임시대회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PCI는 자신의 전략적 지침을 여러차례 변경해 왔다. 1944년 툴리아티가 주도한 ‘살레르노의 대전환’(la svolta di Salerno)과 1973년 베를링게르가 주도한 ‘역사적 타협

(4) 이에 대해서는 *La Pensée, Cahiers du Communisme* 등에 실린 관련 문헌들을 참조하라. 개괄적인 평가로는 Gremetz(1990)가 있다.

(compromesso storico)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극적인 전환점이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공산주의 운동의 전통과 연속성 속에서 이뤄졌던 변화라고 한다면, 19차 대회의 전환은 자신의 전통을 상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전환(svolta)과도 큰 단절을 보이고 있다. 이 전환은 비단 이탈리아 좌파의 역사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그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대전환은 과거 유로코뮤니즘 노선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과거의 노선 변화처럼 동일한 연속선 상의 변화로 파악할 수는 없는가? 또 이러한 대전환을 가져온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PCI의 역사적 타협 노선이 절정기에 달했던 1976~79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알다시피 1973년 칠레 아옌데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고 평화적 이행노선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시 PCI 서기장 베를링게르는 「칠레 사태에 관한 고찰」이란 글에서 다소 방어적인 동맹정책을 제안하였다. 흔히 ‘역사적 타협’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전후 이탈리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카톨릭 세력 사이의 역사적 화해를 제안하면서, 공산당과 기민당의 동반자적 연대를 모색한 것이었다(Tarrow, 1982). 이어서 1975년, 1976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PCI는 각각 33.4%, 34.4%를 확보하였는데, 많은 논자들은 이탈리아에 좌파 연립 정부의 성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짚치기도 하였다.

그리나 PCI의 타협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지방정부의 수준에서만 권력의 분유가 이뤄졌고, 전국적 수준의 연립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PCI가 제15차 대회에서 결의한 ‘국민연대’(solidarieta nazionale) 정책은 기민당-사회당의 중도좌파 연립 정부의 구도를 깨지 못했고, 1979년에 이르면 공식적으로 폐기되어 버린다. PCI가 계속 입각을 거부당하면서 선거지지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고, 반면 ‘5당체제’(pentapartito)의 중심축의 하나인 사회당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타협’ 노선은 변화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베를링게르조차 기민당에 대한 ‘민주적 대안’(democratic alternative)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 시점에 이르면서 동구 사태는 점차 ‘현존사회주의’의 위기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980년에 들어서자 폴란드 연대노조의 파업으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군부가 무력으로 대응하자, PCI는 강력하게 비판을 개진하면서 폴란드 민중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지하였다. 동구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내부 개혁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자 PCI 지도부는 공식선언문을 통해 “10월 혁명이 연 역사적 단계는 종말을 고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발전의 단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폭탄선언을 한다. 이로 인해 소련과 동구 공산당으로부터 PCI의 분리는 더욱 확연해졌다. 이제까지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부에 머무르면서 소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PCI는 한결음 더 나아가 이로부터 이탈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많은 논자들은 역사에 있어서 볼셰비키 혁명이 지닌 ‘추동력’(propulsive forces)이 소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들어오면서 PCI 지도자들과 유럽 사민당파의 접촉이 빈번해지는데 PCI와 사민주의 세력 사이의 의견교환의 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특히 국제정세 면에서 군축과 유럽통합의 쟁점을 둘러싸고 양 세력의 입장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접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또 사민주의 세력 내부에 남유럽 사회당들의 좌경화가 뚜렷이 나타났던 1970년대 후반에 유로코뮤니즘 이론가들은 소위 ‘남구 사회주의’(meridional socialism) 현상에 주목하고 이들과 공산당 세력과의 연합을 촉구한 바 있다.⁽⁵⁾

1984년에 이르면 당 지도자 루치아노 라마(Luciano Lama)는 PCI가 “사실상 사민주의 정당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특히 독일 사민당(SPD)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는 사민당의 좌파 지도자들이 PCI의 이론적 정치적 경향을 매우 높이 지녔기 때문이었다(Ludz, 1981). 1985년 사민당의 지도자 엠케는 PCI의 나폴리타노에게 바드-고테스 베르크 강령 개정시에 PCI가 토론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5) 미테란 당수하의 프랑스 사회당(PSF), 곤살레스 당수하의 스페인 노동자사회당(PSOE), 파반드레우 지도하의 벨헬라사회주의운동(PASOK), 소아레스 당수하의 포르투갈 사회당(PSP) 등은 사민주의 좌파의 영향력 아래에서 대체로 ‘국유화’, ‘자주관리’, ‘자본주의 폐절’ 등을 내걸고 급진화되었고, NATO 등 군사동맹에 반대했다. 강령상으로 급진화된 이들의 목소리는 1970년대 후반에 급속도로 진행된 유럽 내부의 자본의 재구조화 전략에 부딪혀 후퇴하고 말지만, 당시에는 유로코뮤니즘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이에 대해서는 Azcarte(1985:190-202)를 참조하라.

1986년에 피렌체에 개최된 제17차 대회에서는 배를링게르 사망후 서기장직을 승계한 나타(Alessandro Natta)에 의해 ‘신노선’이 확정되었다(이에 대해서는 Timmermann, 1990:127-51 참조). 17차 대회는 기존의 PCI 노선이 취했던 강령의 내용과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동구 사회주의의 위기에 따라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유로코뮤니즘의 자기변화의 노력을 담고 있었다.

당문서는 무엇보다 PCI를 ‘위대한 근대적 혁정당’(the great modern reformist party)으로서 ‘유럽좌파의 통합적 부분(a integral part of European Left)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PCI는 혁명정당이라기보다는 혁정당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에트 유형의 ‘외부로 부터 급격한 단절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내부로 부터 변형시키고 ‘하나의 생산적 모델과 활동이, 다른 모델과 그것의 활동을 극복해나가는 복수의 경제모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혁명을 하나의 ‘단절’(rupture)로 파악하기보다는 ‘과정’(process)으로 파악하는 구조개혁론의 전통을 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PCI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원으로 위치짓기보다는 ‘유럽좌파’(Euro-Left)의 일원이자, 이를 통합하는 중요한 세력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일국 단위의 변혁(‘사회주의로의 이탈리아의 길’)을 사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유럽적 차원’(‘사회주의로의 유럽의 길’)으로 확대시킨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과거처럼 통일전선의 측면에서 사회당-공산당 연합을 사고하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민주의 세력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PCI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이탈하기 위한 최초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겠다.

피렌체 대회에서는 1979년 이래 많은 논자들이 주장한 당의 세속적(claicista)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정치와 당에 대한 협약한 계급이기주의적인 ‘분파적’·‘교권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19세기의 자유민주혁명의 유산을 근대 노동운동에 접목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PCI의 창당 초기에 지배적이었던 단일주의(monism)을 극복하고 ‘정치적 문화적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흡수는 일당 단일주의

가 자신의 오류를 정정할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나 사회주의에서 그 사회를 심각한 정체에 이르게 만든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편 근대 자유민주혁명에서 옹호된 가치들인 “자유, 평등, 정의, 연대” 등이 당의 이념에 흡수되면서 역시 이러한 이념을 담지하고 있는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과의 관계도 급속도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PCI가 자선을 ‘유럽좌파의 통합적 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유럽통합에 보수적 우익적 대안을 극복할 통일적인 좌파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서구의 사민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유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하겠다.

PCI는 1980년대 들어와 전개되고 있는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을 평가하면서, 거대 산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이 팽창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여기서 생산성과 개인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이것이 지닌 잠재력을 강조하였다.⁽⁶⁾ 더구나 산업문명(industrialism)의 시대가 점차 새로운 전기를 맞아 ‘후기 산업사회’ 내지 ‘신산업사회’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신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노동자계급의 중심성’ 테제도 당내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서기장 나타의 다음과 같은 언급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표

(6) PCI의 이런 평가는 1970년대 후반에 점차 드러나는 득표율의 감소가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일찌기 파악하지 못한데 대한 자기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럽 자본주의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본의 재구조화 전략이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결합하여 대량실업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정당의 지지도는 하락하였다. 이는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육체노동자들의 숫자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노동시장도 분절화되어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좌익 역시 전통적인 슬로건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cf. Trivelli, 1989). 토리노의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좌파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Ruggiero(1987)는 이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소련의 이바흐너(1990)은 80년대 유로코뮤니즘의 후퇴가 바로 서구 자본주의의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는 유로코뮤니즘 이론가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익의 대응을 과소평가했고, 좌익과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데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신사회운동의 의미와 잠재력,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가 국내 개혁에 미칠 억제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 PCI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되고 있다. “근대적 좌파는 여성운동, 청년운동, 생태계운동, 환경보호운동, 평화운동, 진보적 종교운동과 더불어 보다 많은 자유를 추구하고 주변 화와 차별을 반대하는 모든 경향들과 더불어 다른 문화들과 경험들에 부딪혀야 한다.” 아마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점차 퇴조해가지만 세로운 형태의 모순에서 등장하는 신사회운동들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당의 조직노선에 대해서는 제17차 대회는 이전 대회의 해석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1983년 16차 대회에서 민주집중제를 더이상 ‘원칙’이 아니라 당의 행동에 있어서 단합을 유지하는 수단 내지 ‘방법’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레닌주의적 내용은 거의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당내에서 경향의 자유는 물론 자유로운 다수파 형성의 원칙 등이 확립될 수 있었다. 계급동맹 정책은 ‘강령에 기초한 정부’(governo di programma)를 위한 전략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사회당과의 ‘민주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요컨대 제17차 당대회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더불어 이탈리아 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대중의 지지도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제 3의 길’ 노선과도 일정한 단절을 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넘어서 보다 본격적인 융합을 꾀하려한다는 점에서 당강령상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점차 조직노선이나 전술방침에 있어서 PCI의 사민주의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페렌체 대회의 노선전환 이래 실시된 1987년 의회 선거에서 PCI는 27.7%를 획득하였으나 지난 1983년 선거 결과보다 2% 이상 득표율이 감소하였다. 당원수도 절정기에 달했던 1977년의 181만 4천명에 비해 1986년 말에는 155만 1천명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청년당원의 숫자는 크게 격감하였다. 선거 폐배의 원인을 둘러싸고 당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전환기에 처한 PCI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당내 좌파들은 선거의 실패를 1986년 페렌체 대회의 개량주의적 선회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때 일 마니페스토(Il Manifesto) 그룹의 지도자였다가 1970년대 말에 당에 복귀한 마그리(Lucio Magri)는 PCI가 “특정

한 이론적 조직적 전통을 지닌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당지도부 노선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투쟁을 강화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중앙파 세력은 당 노선을 실행하는데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실패를 노선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당내 자유주의 세력들은 당 노선이 당 하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데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면서, 대안으로 공개적인 토론회나 의견수렴의 절차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역시 피렌체 대회의 결정을 지지하였고 선거 실패의 문제를 단순히 ‘절차’(procedures) 문제로 왜소화시켰다 (Yearbook, 1988:517-8). 이제 당내에서 다수파로 군림하게 된 중앙파와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은 피렌체 대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절차 ‘공산당’으로서 정체성을 더욱 제거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 코수타와 같은 당내 좌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해 10월에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청년연맹(FGCI)은 협의체 자격으로 사회주의 청년 인터내셔널에 가입하였다.

1987년 선거 결과로 기민당의 안드레오티 내각이 탄생하자 PCI는 사회당을 견인하여 ‘민주적 대안’을 실행할 좌파 블록을 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PCI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5당 연립체제에 묶여 있는 크락시의 사회당은 연정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1988년 중반에 나타난 병환으로 서기장직을 승계받은 오케토가 당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PCI의 온전화는 더욱 심해진다.

오케토는 이전부터 ‘유럽좌파’론을 주장해왔고 PCI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가입을 모색해 왔다. 그는 1989년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 좌파의 공동강령을 사민주의 정당들과 PCI가 연합하여 작성하자는 제안을 내었다. 비록 크락시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PCI와 유럽 사민주의 세력 사이의 관계에 있어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케토는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식에서 스스로 “러시아혁명보다는 프랑스 혁명의 아들”이라고 규정하여 자신의 자유주의적 성향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었다(Yearbook, 1990:672).

신임 지도부의 탄생 이후 중앙위원회-당통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케토는 당의 ‘신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이탈리아 정치의 “중심을 정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정치전략의 핵심을 공산당과 사회당의 낡은 대립을 넘어서 “모든 혁신세력의 새로운 힘”을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하

고 특히 민주적 카톨릭 세력과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10월혁명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사회주의의 의미를 재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미 알려져있고 규정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란 낡은 모순과 새로운 모순에 대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운동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는 여기서 ‘과정’으로서의 혁명, 내지 ‘제 3의 길’로 인식되었던 ‘사회주의로의 이탈리아의 길’에 대한 고전적 해석을 넘어서 사회주의를 하나의 ‘운동’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베른슈타인적 해석(“목표는 없다. 운동이 모든 것이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한다.

게다가 오케토는 ‘탈산업자본주의론’에 서서 ‘노동자계급의 중심성’ 테제를 상대화시키면서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접합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운동체들이 ‘계급교차적’(cross-class)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급이론적 관점에서만 운동을 사고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cf. Occhetto, 1990; Hobsbawm/Occhetto, 1990). 이러한 주장에 대해 좌파인 마그리는 ‘탈산업자본주의’ 개념이 ‘무당파적’이라고 비판하였던 반면에, 일찌기 사회운동과 제도투쟁을 결합할 것을 주창한 인그라오는 신사회운동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여 기층운동의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제18차 당대회의 ‘대회문건’은 서구좌파 속에서 PCI의 위상을 토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위기에 처하고 소진됨에 따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있어 새로운 장”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로의 길(a path to socialism)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길(the path of socialism)”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르바초프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소련의 민주개혁을 극찬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베를링게르가 10여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강조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치문서는 동구제국이 정치적 다원주의, 소유형태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는 개혁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모든 것을 민주화의 확산과정으로 파악한다.

국내 전략에 있어서는 제17차 대회가 제기한 ‘강령에 기초한 정부’론을

확인하고 있고, 당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강력한 개량주의’(riformismo forte)가 요구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강화, 경제에 대한 생태학적 재편을 시도하고, 노동시간의 감소, 작업장에서의 발언권 확장 등을 요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회문건은 논란이 많았던 ‘노동과 노동자들의 중심성’ 테제를 확인하고 있고, 이 범위안에서 신사회운동과의 접합을 모색하고 있다.

‘강력한 개량주의’ 정체와 더불어 대회문건은 ‘당노선의 비계속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소련의 개혁정치가 시작된 이래 블락의 대립이 점차 해체되면서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이 속에서 좌파가 정세를 주도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좌파의 단합을 위해서 PCI가 사민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민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민주의는 “현실의 필요와 객관성의 모순 속에서 생겨났으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최대한 확충을 통해 일국적 규모에서든 국제적 규모에서든 현존하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운동의 사상적 정치적 시사점”이다. 이제 사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시대착오적이며 관념적”이라고 문건은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당강령의 ‘사민주의화’는 조직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신규약은 민주집중제를 정식으로 폐기하면서 사민주의 정당의 당조직론에 크게 접근한다.

이 대회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가입 문제와 당명 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전자는 대체로 다수의 동의를 확보했던 반면, 후자는 서기장 오케토가 반대하여, 나중에 살펴볼 제19차 당대회로 연기되었다.

IV. 제19차 당대회의 대전환

18차 당대회가 열렸던 1989년은 유럽으로서는 격변의 한 해였다.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는 이 한 해 동안 급격하게 폭발하였고, 기존의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는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해체되었다. 이해 연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서 동구의 변혁은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동구 상황의 급진전으로 오케토파(occhettiani)는 PCI 노선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긴급 동의안을 지도부에 제출하였다. 오케토는 “모든 방향에 있어서 대변화와 이노베이션”을 주장하면서 “진보적 세속인과 카톨

릭적 요소에도 개방된 새로운 민주적 정치적 세력 형성”을 요구하였다. 서기국의 무시(Mussi) 역시 “이탈리아 좌파의 페레스토로이카”를 주장하면서 오케토의 대전환 노선을 지지하였다.

오케토의 제안에 당내 중앙파 지도자들은 대전환의 타이밍이 애매하다고 반대하였으나 대체로 결정적인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좌파인사들은 오케토의 제안이 가지는 우경적 요소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위원회에서는 찬성 217표, 반대 73표, 기권 34표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블로냐에서 PCI 역사상 최초로 임시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대회는 “새로운 정치적 세력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란 슬로건 아래에서 좌파의 이니셔티브를 극대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Laroche, 1990 참조)

19차 임시대회에 제출된 오케토파(occhettiani)의 안은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블럭과 냉전체제의 해체를 강조하고 이로 인해 열린, 여러가지 가능성에 좌파가 대동단결하여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사민주의 전통과 공산주의 전통 사이의 “낡은 대립”이 극복되어 질 것이 요구되었고, 광범한 민주세력과 좌파세력이 결집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의 설립단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공산당은 자신의 독자성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며 사민주의 세력과 신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융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케토파의 논리였다.

그러나 인그라오, 나타, 토르토렐라 등이 결집한 반대파들은 오케토파의 안이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고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의 설립단계의 시작에 대신할 대안으로 PCI의 “혁신”(renovation)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제안이 결국 당의 목표를 애매하게 만들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고, 당의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파세력의 연합을 동맹이나 협조를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그라오는 구조변혁을 지향하는 ‘제 3의 길’이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과거 일 마니페스토 그룹의 지도자인 루치아나 카스텔리나는 오케토의 제안에 제시된 국제정세 분석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유럽의 동심원화” 테제를 반대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오케토가 혁과정을 민주화의 국면 내지 협동의 과정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지배세력들이 협정세를 만들어

내기위해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한 요소는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의 논리에 따르면 ‘현존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로 진영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한 진영이 독주할 가능성이 큰 새로운 불균형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것이었다(Laroche, 1990:101).

반대파는 PCI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가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로 인해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당시 현재 이탈리아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교 정책이나 인종주의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점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차 당대회에서 오케토의 제안은 730표, 반대파 1안(Ingrao-Natta-Tortorella)은 324표, 친소파 코수타안은 37표를 각각 얻어 오케토의 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9차 임시대회에 제출된 오케토 서기장의 보고는 크게 국제정세 변동과 유럽좌익의 쇄신, 국내상황에 대한 PCI의 이니셔티브, 새로운 정치적 세력 형성의 목표와 이념, 세력형성의 원칙, 당내민주주의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오케토는 1989년을 분기점으로 냉전과 블럭의 논리가 해체됨과 동시에 현존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유럽 좌파들에 부여된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89년을 뒤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를 그 근저에서부터 변화시킨 일년이었다. 현존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우리는 이 사회모델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양극 균형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은, 쇄신, 민족자립, 인간적 존중, 자유와 연대, 평등의 이상에 기초하여 낡은 질서와 구태의연한 사태에 대한 반대운동의 확대 때문이라는 것을 올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생겨나고 있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위험 이상으로 진보를 향한 위대한 움직임이고 이는 동방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민중의 감정과 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사라진 체제에 대한 비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로서도 민주적 발전의 새로운 길의 탐구가 필요하다. 우선 전 유럽좌익

의 조직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군축정책의 촉진, 군사블럭의 극복, 유럽통일, 공동체의 민주화와 개방, 독일 재통일에 관련된 국제정책 등에 관한 독창적인 제안과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이다.

이로부터 새로운 국제주의의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 우리(PCI: 인용자)의 독자성은 고립화의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 필연적으로 무화될 것이며 반대로 가장 광범위한 토대 위에서 배치되고 다양한 진보적 사상적 경향의 새로운 세력을 영립할 때만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광범위한 유럽좌익의 결집과 제조직화에 협력한다는 강고한 결의를 가지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참가할 것을 제기한다.”(오케토, 1990:335-7)

이제 당의 위상은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당, 유럽규모에서 좌익을 재편하기 위해 활동하고 그를 위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당”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 보고문에는 과거 PCI가 내세운 ‘국가의 위기와 변형’ 전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제 3의 길’론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굳이 대전환 이후의 PCI의 위상을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 위치지운다면 사민주의 좌파 정도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오케토는 과거 유럽좌익의 활동에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던 블럭간의 대립이 해체되었고 이로 인해 열린 공간이 좌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블럭해체의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부였던 PCI만의 독자적인 프로젝트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스스로 변신하여 사민주의 운동과 융합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연장되는데 오케토는 중도-좌파 연립에 의한 5당체제에 대한 민주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PCI와 모든 좌파, 민주 세력의 단합을 요구하고, 이들을 결집한 새로운 정치적 세력형성의 설립단계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보적이고 민주적인 카톨릭 세력, 환경주의자, 급진당 세력, 사회주의자, 지하에서 활동하는 좌파세력 등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케토는 신사회운동 세력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접근은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이 확보되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접근을 통해 접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접근법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세력형성의 설립단계가 시작됨에 있어서 그 내부의 합의 방식은 과거처럼 협의 대소에 따른 통일전선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개방된 다원주의적인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정치조직의 기본적 합의 사항으로 “자유의 이상과 평등의 이상을 통일”하는 것으로 프랑스혁명의 중심적 가치인 “우애의 가치를 통한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탐구는 자유와 평등, 공과 사, 축적과정과 인간적 욕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의존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체의 확립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길로서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사고와 사회의 전일적 민주화라는 우리의 계획을 접약하는 보다 고도의 총합이다. 기본강령의 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상호의존성, 민주주의, 연대라는 것이 진밀하게 연관된 원칙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오카토, 1990:342)

우리는 여기서 PCI가 내세우는 새로운 정치세력 조직의 강령이 사민주의 강령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상 사민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PCI는 이제까지 유지해 왔던 공산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탈각하고 사민주의 쪽으로 경향적으로 일치되게 되었다. 이러한 강령변화에 맞춰 대회는 당명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당’(PDS)으로 개칭하였다.

V. 맷으면서

1989년의 격변을 거치면서 서구의 공산당들도 큰 변화의 흐름 속에 휩싸이고 있다. 1920~30년대의 코민테른의 지부로 결성된 각국 공산당들은 소련과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물론 유로코뮤니즘이야 이미 오래 전부터 ‘현존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 올 수 있어서 그 충격이 덜하겠지만, 10월혁명의 전통에 자신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받는 충격은 역시 클 것이다.

1980년에 들어서 대중적 기반이 감소되고 있는 PCI는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자, 창당 이래의 전통과 결별하면서 또다른 하나의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뿌리인 사민주의의 흐름과 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봄부림은 1989년의 대격변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이뤄졌다. PCI가 내새

우는 유럽좌파의 결집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유럽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회당과의 연합이 성공하여 전후 기민당의 해제모니 아래 유지되어온 5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인지도 향후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대전환은 마키아벨리, 그람시, 톨리아티, 베를링게르와 같은 유연한 지적 정치적 사고의 밀거름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찰 고 문 현

- 1989 “이탈리아 공산당의 노선 분석—사회주의의 한 대안적 분석”, 계간 『경제와 사회』 봄호.
- 오케토(조효래 역)
- 1990 “이태리공산당 제19차 임시대회 오케토 서기장의 보고”, 계간 『동향과 전망』 겨울.
- 이마흐너, A.
- 1990 “유로코뮤니즘의 이론적 모색과 협단계 서구 기술혁명의 사회정치적 계측면”, 쿠친스키, 월러스타인, 조영환 공편,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울.
- 정운영 편저
- 1989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연구 IV, 프랑스 이탈리아편』, 돌베개, 서울.
- 최장집
- D'Alema, M.
- 1990 “Formulas for Progress,” *World Marxist Review*. no. 1.
- Althusser et al.
- 1982 *Discutir el Estado: posiciones frente a una tesis de L. Althusser*. Folio Ediciones, Mexico.(이탈리아판, 1978)
- Azcarte, M.
- 1985 *La izquierda europea: 1940~1980*. Universidad Autonoma de Sinaloa, Sinaloa, Mexico.
- Battistrada, F.
- 1989 “L'histoire de l'URSS vue par les marxistes italiens,” en *Actuel Marx*. no. 6.
- Campbell et al.(discussion)
- 1990 “The End of the Affair,” *Marxism Today*. January.
- Carrillo, S.

- 1977 *Eurocommunisme et Etat*. Flammarion, Paris.
- Cerroni, U.
- 1984 *Teoria politica y socialismo*. Ediciones Era, Mexico.(이탈리아초판, 1973)
- Claudin, F.
- 1975 *The Communist Movement, From Comintern to Cominform*. MRP, New York.
- 1978 *Eurocommunism and Socialism*. NLB, London.
- 1981 *La oposicion en el 'socialismo real'*. Siglo XXI, Madrid.
- Guerra, A.
- 1989 "La perestroika, une revolution?", en *Actuel Marx*. no. 6.
- Gremetz, M.
- 1990 "Le monde en mouvement," *Cahiers du communisme*. janvier.
- Hobsbawm, E.
- 1990 "Goodbye to All That," *Marxism Today*. October.
- Hobsbawm/Napolitano (interview)
- 1977 *Italian Road to Socialism*. Lawrence Hill & Co., Co., London.
- Hobsbawm/Occhetto (interview)
- 1990 "Splitting Image," *Marxism Today*. February.
- Ingrao, P.
- 1980 *Masse et pouvoir*. PUF, Paris.
- 1985 "The European Left and the Problems of a New Internationalism: *Socialism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ed. by M. Nicolic, Verso, London.
- Kagarlitsky, B.
- 1990 *The Dialectic of Change*. Verso, New York.
- Laroche, P.
- 1990 "La situation italienne et le 19^e congrès du PCI," *Chaiers du communisme*. mai.
- Ludz, P.C.
- 1981 "Eurocommunism and its Influence o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West Germany," in G. Schwab ed., *Eurocommunism: the Ideological and Political-Theoretical Foundations*. Greenwood Press, West Port, Conn.
- Machin, H.
- 1982 *National Communism in Western Europe: A Third Way to Socialism?*. Methuen, London.
- Marramao et al.
- 1981 *Teoria marxista de la politica*. Cuadernos de Pasado y Presente, Mexico.
- Masyagin et al. (discussion)
- 1990 "Two Sides of the Same Coin: Discussing Democratic Centralism," *World*

- Marxist Review. no. 1.
- Ruggiero, V.
- 1987 "Turin Today: Premodern Society or Postindustrial Bazaar?", *Capital and Class*. no. 31, Spring.
- Samhoun et al. (discussion)
- 1990 "Eurocommunism in a Historical Perspective," *World Marxist Review*. no. 2.
- Tamburrano, G.
- 1989 "The Objectives of the Italian Socialists," *World Marxist Review*. no. 11.
- Tarrow, S.
- 1982 "Historical Compromise or Bourgeois Majority? Eurocommunism in Italy 1976~9," in Machin(1982).
- Timmermann, H.
- 1990 *The Decline of the World Communist Movement: Moscow, Beijing, and Communist Parties in the West*. Westview Press, Boulder, Cal.
- Trivelli, R.
- 1989 "The ICP's Decline Is Not Inevitable...", *World Marxist Review*. no. 3.
- Vacca, G.
- 1989 "La 'nouvelle pensee' planetaire de M. Gorbachev," en *Actuel Marx*. no. 6, PUF, Paris.
- Vodolazov/Rubbi
- 1989 "The 'New Internationalism': A Drama with a Happy Ending?", *World Marxist Review*. no.?
- Weber, H. (ed.)
- 1977 *Le parti communiste italien*. Christian Bourgois Editeur, Paris.
- Weber/Ziegler
- 1989 "Communist and Social Democrats: A Time to Gather Stones Together," *World Marxist Review*. no.?
-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1985~90, 각년도별 "Italy."